

201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 (Vol.4)

e-날씨 ㅠ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2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_ 슬섬 무지개 (박미희)

청명한 오후... 갑자기 여우비가 내립니다.
또 맑음... 비... 하늘에서 물감이 흘러내려 무지개를 그립니다. 하나가 아닌 쌍무지개를...
자연은 언제나 동심으로 돌아가게하여 알나를 행복으로 물들입니다.

CONTENTS

201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 (Vol.4)

INTRO

04 / 청장님 인사말

WEATHER

- 06 / 대전·세종·충남지방 지난 봄철(3월~5월) 기후특성
- 08 / 여름철 절기정보(6월~8월) & 날씨전망
- 10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1 - 태풍보다 무서운 폭염
- 12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2 - 생활기상정보로 더위 극복하기
- 14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3 - "비 안 내리는 장마?"... 장마에 대한 생각
- 16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4 - 삼복(三伏) 더위, 실제 더울까?
- 18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5 - 여름 불청객 '식중독'... 더울수록 음식 조심
- 20 / 예보상식 - 수많은 이름의 태풍, 그 위력이 궁금하다

SPECIAL ISSUE

- 22 / 대전지방기상청 Book Cafe - 대한민국 원주민을 읽고...시대는 겹쳐서 존재한다
- 24 / 2016년 2분기 문화체험 - 한국의 나폴리 '통영'과 한옥마을 '전주'
- 26 / 아름다운 핑크빛 유혹, 경상남도 합천군 황매산
- 28 / 천년고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노천 박물관, 경주 남산
- 30 / 2016년도 기후변화 그림엽서 공모전 - 덩동~ 100년 후 지구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REPORT

- 32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41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 42 / 민원신청방법
- 43 /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신청방법
- 44 / 2016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 일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16년 7월 15일 여름호 (Vol.4)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서장원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조현지(기획운영과), 최상희(예보과), 홍성근(관측과), 안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연직(예보과), 김지영(홍성기상대), 박난수(기후서비스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지혜(홍성기상대), 박창용(기후서비스과), 박형진(기후서비스과), 배철호(기후서비스과), 이인성(예보과) 조아라(기후서비스과)

항상 애정 어린 시선으로
대전지방기상청을 응원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장 서장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더욱 빛을 내는 신록이 가득한 7월, 새로 대전지방기상청장을 맡게 된 서장원입니다. 그간 해양기상 관련 업무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첨단 과학의 도시, 문화도시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렘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작년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우수 예·특보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과 성과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끌어 오신 역대 청장님과 대전지방기상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은 많은 분들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시선으로 대전지방기상청을 응원해주신 점 매우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대전지방기상청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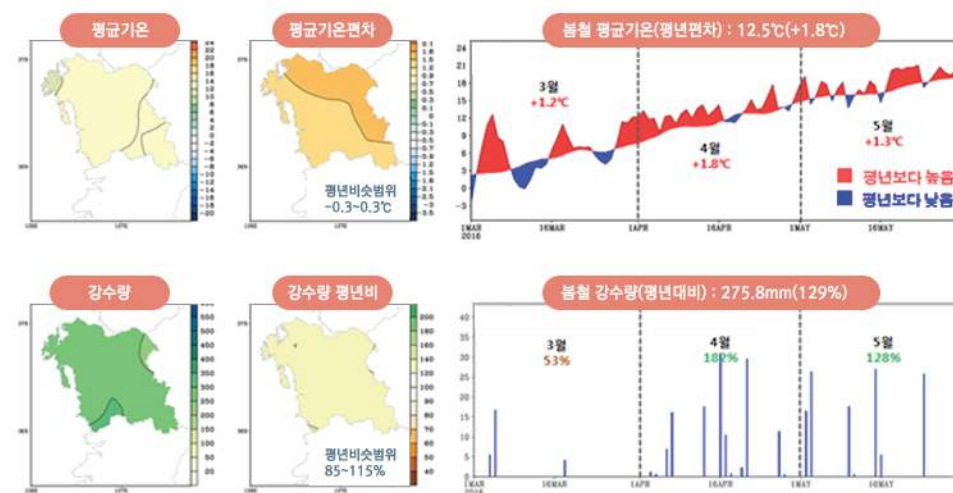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두 배, 세 배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다짐으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봄철(3월~5월) 기후특성

평년보다높은기온,
봄철 고온현상지속

- 봄철 평균기온은 12.5℃로 평년(11.0℃)보다 1.8℃ 높았음
 - 3월, 4월, 5월 평균기온은 6.1℃, 13.1℃, 18.1℃로 평년(3월 4.9℃, 4월 11.3℃, 5월 16.8℃)보다 1.2℃, 1.8℃, 1.3℃ 높았음
 - 3월에는 기온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4~5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아 고온현상이 지속되었음

- 봄철 강수량은 275.8mm로 평년(213.6mm)대비 129%였음
 - 3월 강수량은 26.6mm로 평년(49.4mm)보다 적었고, 4월에는 129.3mm로 평년(70.5mm)보다 많았으며, 5월에는 119.9mm로 평년(93.7mm)보다 많았음



3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4위,
매우 적은 강수량

-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세종·충남지방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
 - ※ 대전·세종·충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2℃ 높아 1973년 이후 3월 평균기온 최고 공동 4위 기록 (1990, 1992, 1998, 2008, 2016년)
- 저기압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통과하면서 3월 4~6일과 18일 강수를 제외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대전·세종·충남지방의 3월 강수량은 평년대비 53%로 매우 적었음

4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3위,
많고 잦은 강수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8℃ 높았으며, 1973년 이래 최고 3위 기록하였음
 - ※ 1973년 이래 평균기온 최고 1위: 1998년(14.5℃, +3.2℃)
-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기압계가 자주 형성되어 비가 자주 내렸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비 182%)

5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3위,
평균최고기온 역대 2위

- 전반에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후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과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1973년이래 대전·세종·충남 평균기온은 세 번째(공동 1위 2001, 2012년: 18.2℃, 평년: 16.℃)로 높았고,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1위 1978년: 25.2℃, 평년: 23.2℃), 높았음
- 전반에는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많이 내렸으나,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5월 대전·세종·충남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비 128%)

여름철 절기정보 & 날씨전망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6월의 절기 망종(芒種)과 하지(夏至)

6월에는 24절기 중 농업 및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절기인 망종과 계절을 나타내는 절기인 하지가 들어 있다.

망종은 올해 양력으로 6월 5일이며,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하지는 올해 양력으로 6월 21일이며,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로 이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점 상승하여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때이다.

7월의 절기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7월에는 24절기 중 소서와 대서가 들어 있다.

소서는 24절기 중 기후를 나타내는 절기로 올해는 7월 7일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는 시기적으로 장마철이며, 장마전선의 정체로 습도가 높고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다.

대서 역시 24절기 중 기후를 나타내는 절기로 올해는 7월 22일이다. 대서는 대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때이나 때때로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한반도에 걸쳐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한다.

8월의 절기 입추(立秋)와 처서(處暑)

8월에는 24절기 입추와 처서가 들어 있다.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로, 올해는 8월 7일이다. 입추기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슬이 진하게 내리며,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한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올해는 양력으로 8월 23일이며, 처서 기간에는 매가 새를 잡아 늘어놓고 천지가 쓸쓸해지며, 논의 벼가 익는 시기라고 한다.

여름철 대전·세종·충남지방 날씨전망

망종과 하지가 들어있는 6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고, 기온 변화가 크겠다.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다. 기온은 평년(21.4℃)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49.6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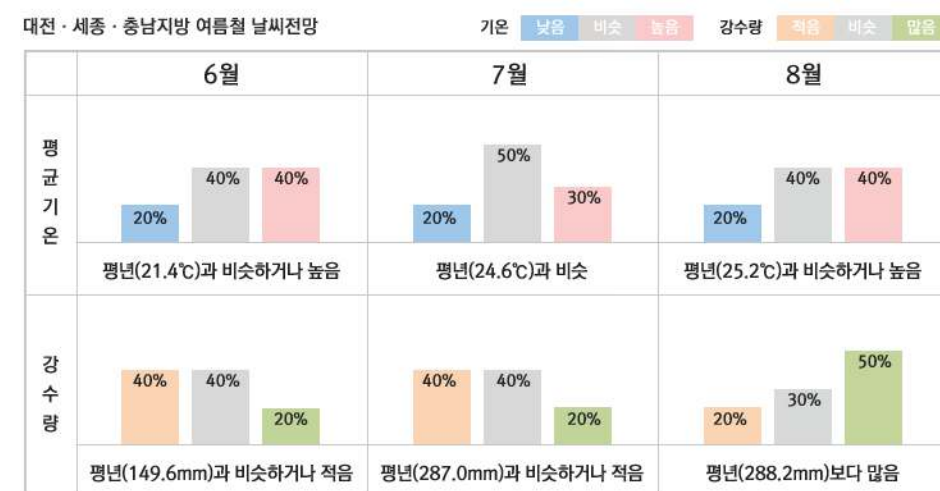
소서와 대서가 들어있는 7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으며,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후반에는 점차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온은 평년(24.6℃)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287.0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추와 처서가 들어있는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이 많겠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함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남서류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다. 기온은 평년(25.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88.2mm)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세종·충남지방 여름철 날씨전망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1 '태풍보다 무서운 폭염'

지난 2015년 6월 20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일주일 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1천여명이 사망했다. 폭염 피해는 6월 20일 카라치 시내 기온이 45℃에 달하면서 시작 됐으며, 공교롭게도 폭염이 이슬람 단식 성월(라마단)과 겹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졌다. 폭염은 여름철 위험기상 중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기상재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장마가 끝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여름철인 6~9월 동안만 운영 하였던 폭염특보의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였다. 폭염특보의 기준을 살펴보면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해는 1994년이다. 1994년 7월, 32일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장마 기간이 짧아 북태평양고 기압이 빨리 확장하였으며, 고기압 세력도 매우 강하게 발달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대전과 청주 지역은 7월 24일 일 최고기온이 각각 37.7℃, 37.8℃까지 올라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2000년대 이후에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3년 7월로 평균기온(26.1℃)이 평년보다 1.4℃ 높았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지속되면서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났으며 가축이 폐사하고, 천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피해를 보았던 해도 있었다.

2009년 7월은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여 전국적으로 저온현상이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의 평균기온은 23.4℃로 평년보다 2.5℃ 낮아, 저온현상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었으며 일부 농작물의 생육지연이 나타나기도 했다.

폭염,
장마가 끝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2
생활기상정보로 더위 극복하기

기상청,
폭염특보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지옥과 같은 더위가 5일 동안 몰려왔다.
“우리는 무더위가 오고 있는 것을 예보했지만 살인적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이 주택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 예보관이었던 폴 데일리(Paul Dailey)가 한 말이다. 기상재해 중 사람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폭염이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지역도 지난 2015년 6월 10일 대전의 낮 기온이 35℃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이래 최고(6월 상순 기준)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35℃는 우리나라에서 폭염 경보 기준이 되는 온도로써 초여름치고는 매우 높은 기온이었지만, 실제로 대전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폭염특보는 언제 발표될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의 기준을 살펴보면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여름철인 6~9월 동안만 운영하였던 폭염특보의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열지수, 불쾌지수,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등의 생활기상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열지수는 기온과 습도에 따른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것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열파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열지수는 태양빛에 직접 노출되면 발표치보다 8.3℃정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면 더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계는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위험으로 나뉘며 높음(41 이상~54 미만)부터는 열사병, 열경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표현한 것으로 온습도지수 (THI)라고도 하며, 개인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15년 7월 6일
중도일보 > 오피니언 > [열린마당]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단계는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4단계로 나뉘며, 높음(76 이상~80 미만) 단계에서는 인구의 50%정도가 불쾌감을 느끼고, 매우높음(80 이상) 단계에서는 전원이 불쾌감을 느낀다.

열지수와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출 시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입고, 실내에서는 냉방 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하며, 노약자의 경우는 특히 야외활동을 삼가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그 밖의 더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날씨> 생활과 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올 여름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더위를 극복해보자.

열지수의 단계별 설명 및 주의사항		
단계	지수범위	설명 및 주의사항
 위험	66이상	- 가급적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야외활동 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함 -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수준(26~28℃) 을 유지하여 각별한 주의 요망 냉방기기가 없는 경우 냉방기기가 구비되어있는 가까운 공공기관을 이용 - 환자 발생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119에 구급 요청
 매우높음	54이상~66미만	- 열사병, 열경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낮 12 ~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자제하고 햇볕을 차단 - 주 · 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주의
 높음	41이상~54미만	- 열사병, 열경련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외 활동 및 작업에 주의하고, 적극적 수분 섭취 필요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면소재의 헐렁하고 가벼운 옷 입기 -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않도록 주의
 보통	32이상~41미만	- 열사병, 열경련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외 활동 및 작업에 주의하고, 적극적 수분 섭취 필요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면소재의 헐렁하고 가벼운 옷 입기 -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않도록 주의
 낮음	32미만	- 일반적으로 위험은 낮으나 수분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비 안 내리는 장마?" ... 장마에 대한 생각

기상학적으로
단순히 비가 긴 시간
내린다고 장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여름의 시작에서 며칠 동안 비가 지속되면 흔히들 장마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장마인데 왜 비가 안오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장마라는 말이 '길다'라는 의미의 [당]과 '물'이라는 의미의 [마]가 더해진 단어로 오랜 기간 내리는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단순히 비가 긴 시간 내린다고 해서 장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장마는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의 일부로 여름철에 우리나라 남쪽의 온난 습윤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 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다. 마치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처럼 세력이 비슷한 두 고기압이 형성되면 그 사이에 공기가 갇혀 정체하게 되는데 장마는 이런 정체전선을 의미한다. 전선이 걸쳐있는 지역은 강한 남서풍과 함께 습윤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 긴 시간동안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장마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북태평양고기압과 오호츠크해고기압이다.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확장해오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동쪽의 차고 습한 오호츠크해고기압을 만나면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간 비가 내리게 된다. 이때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 즉 장마전선이 북상해 비구름은 북한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아 소강상태가 된다. 반대로 북쪽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장마전선은 한반도 남부지방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만큼 장마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장마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

기상청에서는 단기예보와 중기예보, 보도자료를 통해 장마전선의 위치와 예상 강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름철 사후분석을 통해 장마의 시종관련 통계를 알려주고 있다. 1961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기간을 살펴보면 6월 20~26일경에서 7월 20~25일경까지 약 한달 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9년에는 8월 10일까지 장마가 이어져 장마기간이 47일이나 되었고, 1973년에는 6월 30일에 끝나 장마기간이 6일 밖에 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단들의 세력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장마 종료 후에 집중호우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 강수량에서 장마기간에 내린 비가 30%라면 장마 후 집중호우로 내린 비가 50~60%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시작하는 것으로, 또 비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장마도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장마전선이 물러간 이후에 생기는 이런 집중호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제는 장마 후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

여름철 많은 비로 인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대나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침수에 대비하고,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서 범람의 위험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감전 등의 누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기나 에어컨 등에 접지가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름은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계절이다. 무더위에 장마, 집중호우와 태풍 등 날씨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4 삼복(三伏) 더위, 실제 더울까?

초복, 중복, 말복
무렵을 ‘삼복더위’라
부른다.

여름의 더위는 그 느낌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햇볕이 몹시 뜨겁게 내리쬐어 피부가 따끔따끔하게 느껴지는 더위를 ‘불볕더위’라 하는데 이는 폭염과 같은 뜻이다. 마치 뜨거운 김을 쐬고 있는 듯 숨이 턱 막히는 더위는 ‘찜통더위’라고 부른다. 또한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바로 ‘무더위’라고 하는데 이는 ‘물’과 ‘더위’가 합쳐진 말이다.

이와 더불어 일 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 무렵을 ‘삼복더위’라 부른다.

오행설에 의하면 봄은 나무(木)의 기운, 여름은 불(火)의 기운, 가을은 금(金)의 기운, 겨울은 물(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다. 삼복의 복(伏)은 오행설에서 ‘가을의 서늘한 금(金)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불(火)의 기운을 무서워하여 엎드려 숨어 있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 때는 삼복더위를 피하려고 관리한테 사흘 휴가를 췌다는 기록이 있고, 임금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삼복에는 공역을 금하거나 관리들한테 열음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담겨 있다. 고종 때 세운 신학교의 방학은 ‘초복에서 말복까지 무더운 때’였다고 한다.

삼복더위의 영어표현은 midsummer heat 혹은 the heat of the dog days인데, dog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보신탕의 그 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dog days는 “복중, 삼복”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의 점성학에서 나온 말이다.

늦여름 기간 중 북반구에선 the Dog Star(개 별)로 불리는 Sirius(시리우스)가 상승해 태양과 일직선을 이루는데, 고대인은 시리우스의 열기와 태양의 열기가 합해져서 숨 막히는 더위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실제 복날은 더울까?

올해 초복은 7월13일이었다. 이날 강릉과 제주 등지는 낮 최고기온 31.3도, 33도로 제법 높은 기온을 보였지만 대전(24.4도), 청주(25.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은 장맛비까지 겹쳐 초복다운 날씨를 보이지 않았다.

복날이 평일보다
더 더운 것은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사실로 증명된 셈

하지만, 2000년~2014년 15년 동안의 7대 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초·중·말복 일 최고기온 평균을 보면, 초복은 28.2도, 중복은 30.1도, 말복은 30.7도이다.

삼복 평균은 29.7도로 7대 도시 여름철 평년(1980~2010년, 30년 평균) 일 최고기온 28.4도보다 1.3도가 높다. 이처럼 복날이 평일보다 더 더운 것은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지난 2015년 8월 4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불볕더위로 각 지역 폭염특보까지 내린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무려 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삼복에 해당하는 날에는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됐지만, 삼복더위 기간에는 결코 방심할 수 없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말복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주가 시작된다. 삼복더위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후끈 달아오른 대기의 온도만큼 우리의 신경도 부쩍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짜증이 몇 배가 되기 마련이다. 무더위에 짜증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높아진 습도인데, 기온이 높아 몸에서 땀이 나도 대기의 높은 습도 탓에 증발하지 못하므로 체온조절이 어려워 몸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귀찮음과 짜증이 증가한다.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도)으로 유지하고, 잠 못 드는 열대야에는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충분한 수분섭취를 통해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어느새 입추(8월 8일)가 우리 곁에 와있다. 말복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온 모양이다. 뜨거운 대지에 몰래 가을의 씨앗을 심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주문을 외고 있는 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계절

전국 여기저기 때 이른 폭염주의보로 지난 5월이 들쭉거렸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이 언제였는지 모르게 벌써 여름으로 훌쩍 넘어왔으며 날은 점점 더워지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철 전망에서는 6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뿐 아니라 심할 경우 전신에 열이 발생하거나 신경마비, 근육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6~8월)이 되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되어 균이 번식하기 쉽고 음식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게 된다. 통계적으로도 학교 식중독 환자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의 36%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에 평균 148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계절이다.

이처럼 식중독과 날씨의 상관관계는 적지 않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식중독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식중독지수는 기상변수(일최저기온, 일평균기온)와 기상외적인 요인을 사용하여 일별 식중독 발생건수를 예측하고, 이를 과거 4년(2009~2012년)동안의 기상자료로 계산된 일별 식중독 발생건수 예측량과 비교하여 산출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3월에서 11월까지 오늘, 내일, 모레 3일 간의 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식중독 지수 단계 중 주의가 발표된 상황이다.

단계별 설명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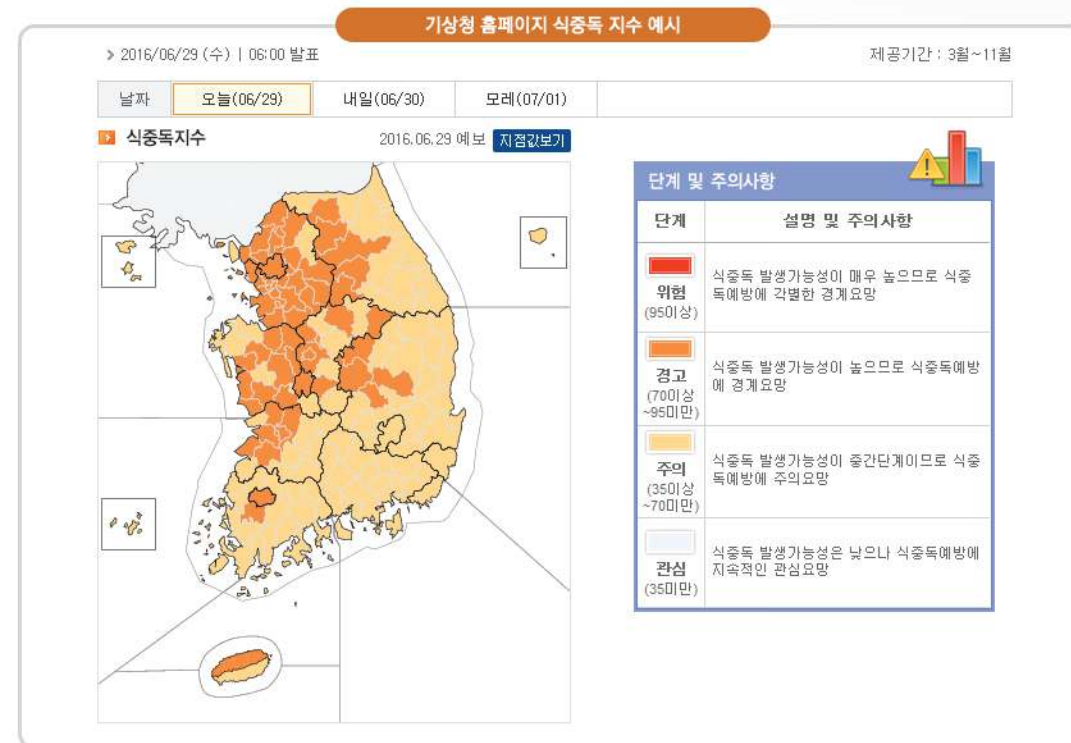
위험은 식중독 지수 95 이상으로 3~4시간 내 음식물이 부패될 수 있어 음식물 취급에 극히 주의를 요하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기상정보 및 식중독 지수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

경계를 요망하는 단계이며 경고는(70 이상~95 미만)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중독예방에 경계를 요하는 단계이다. 주의는(35 이상~75 미만)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중간 단계이므로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요하며 관심은(35 미만) 식중독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식중독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식중독은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손을 씻거나, 음식은 74℃ 이상 1분 이상 조리하여 익혀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 > 날씨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생활기상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봄철, 이른 무더위가 지나자마자 바로 여름이 다가왔다.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여름철에 건강관리를 위해선 음식물 섭취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시기에 식중독은 분명 반갑지 않은 존재이나 기상정보 및 식중독 지수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이름의 태풍, 그 위력이 궁금하다!!

태풍이란 무엇일까?

태풍이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 호주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윌리윌리(Willy-Willy)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7~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적도를 사이에 둔 남북 5°이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북대서양 서부, 서인도제도 부근
- ② 북태평양 동부, 멕시코 앞바다
- ③ 북태평양의 동경(東經) 180°의 서쪽에서 남중국해
- ④ 인도양 남부(마다가스카르에서 동경 90°까지 및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
- ⑤ 벵골만과 아라비아해

①,②,③ 지역은 7~10월에 많이 발생하며, ④,⑤지역은 4~6월과 9~12월에 많이 발생한다.



박보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질까?

태풍 이름은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가 각 조 28개씩 5개조로 구성되고, 1조부터 5조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며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나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하기로 정했다. 태풍이 보통 연간 약 30여 개쯤 발생하므로 전체의 이름이 다 사용되려면 약 4~5년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등의 태풍 이름을 제출했고, 북한에서도 '기러기' 등 10개의 이름을 제출했으므로 한글 이름의 태풍이 많아졌다.

태풍의 이름은 퇴출되거나 대체되기도 한다. 매년 개최되는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경우 앞으로 유사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해당 태풍 이름의 퇴출을 결정하며, 피해를 주지 않은 태풍일지라도 다른 사유로 더 이상 현재 태풍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태풍 이름으로 대체된다. 태풍이름의 변경은 퇴출된 태풍 이름을 제출한 국가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나비'의 경우 2005년에 일본을 강타하면서 엄청난 재해를 일으켜,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태풍의 위력은 어떠한가?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수목이 꺾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통신 두절과 정전이 발생하며, 하천이 범람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태풍의 위력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을 비교해 보면 태풍이 원자탄보다 만 배나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강도
1950년 전세계 열소비량	100
태풍	1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	1/10
나가사키 원폭	1/10,000
벼락	1/1,000,000,00
돌풍	1/10,000,000,000,000

이렇듯 강한 에너지를 가진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해 온다면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하고,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나와 있는 태풍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자.

※ 국민안전처 - 태풍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pss.go.kr/safetys/sub05_typhoon.html

※ 출처 : 국가태풍센터, 국민안전처

대한민국 원주민을 읽고...시대는 겹쳐서 존재한다



최규석(만화가) 저
창비 (2008. 5. 30.)

어린시절 국어교과서 내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과 우리집은 조금은 달랐다. 어린시절 과수원을 하던 우리집은 아버지가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출근하지도 않았고, 난방도 보일러가 아닌 장작을 때는 재래식 난방을 했었다.

또한 그때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처럼 그네, 시소가 있는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이 아니라 동네 시냇가 또는 야산이 주된 놀이장소였다. 우리집이 사정이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지만 남들과 달랐던(혹은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장환경은 유년시절 종종 나를 불편하게 했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이 책은 작가이자 화자인 1975년생 최규석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그의 1940년대 생인 부모님, 1960년대 생인 그의 형, 누나들의 이야기이다. 내용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사건들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큰 사건에 휩쓸리고 적응하는 모습을 담담히 묘사할 뿐이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소시민에게 가족의 안위는 이념과 시대보다 가깝다.

주인공은(작가 최규석) 나와는 6년 정도의 나이차이가 난다. 1983년생인 나와는 나이차이가 크지 않지만 작가의 이야기들은 과연 동일한 시대에 유년시절을 보냈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예를 들면 장남의 성공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누나가 방적공장에서 일을 해 학비를 버는 이야기와 같은 것은 내 세대에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 또한 작가도 이러한 상황을 그 때의 기준에서 생각해두 유난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모든 변화 과정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세대, 시대는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연속적이다. 2013년 현재에도 1990년대의 생활양식 혹은 훨씬 이전의 생활양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을 시대착오적 혹은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과거의 시대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와 같은 박제된 추억 상품 같은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홍성근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속도감이 지배하는 현세대에 우리는 다음의 시대로 넘어갈 것을 강요받으며 속도에 뒤쳐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없는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시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저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모두 동시에 한꺼번에 새로운 세대로 갈 수는 없다. 간신히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붙들며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도 자만할 이유가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은 지금의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 기존의 생활양식에 고착하게 한다. 이러한 새로움, 피로감, 고착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이며,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현재의 모두가 최신, 첨단이라 불리는 시대의 열차에 탈 수 없다. A는 그 열차를 탈 돈이 없고, B는 열차를 놓치기도 하고, C는 입석으로 가고, D는 타지 못한 열차를 그래도 쫓아가 보려고 버스로도 가고, E는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 동일한 시간 속에서 있는 각자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과거의 생활양식, 의식은 다만 조용히 현재라는 시간 아래로 서서히 천착될 뿐이다. 서글퍼 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세월이 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한국의 나폴리 '통영'과 한옥마을 '전주'



첫째 날,

오전 9시. 대전(청)의 김태열 주무관과 박중숙 주무관, 그리고 홍성기상대의 나까지 세 사람이 드디어 문화체험을 떠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목적지는 ‘통영!’...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번 문화체험이 직원들 간 소통이 목적이었기 때문일까 통영까지 가는 내내 넘쳐나는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길을 잘 못 들기도 하는 작은 해프닝들도 있었다.

통영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드넓게 펼쳐진 바다!

사무실 CCTV로 바라만 봤던 흐린 화면 속 바다가 아닌 짙은 물빛의 바다였다! 풍경 감상은 잠시 미뤄두고 일단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맛집으로 소문난 장어구이 식당에 갔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들이 향한 곳은 ‘이순신장군 공원’이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니 생각보다 넓고 예쁜 공원이라 놀랐다. 그리고 확실히 관측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시정이 정말 안 좋다, 박무인가?’ 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맑았으면 저 멀리 섬들까지 선명히 보였을 텐데 아쉬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정이 아니라 이 예쁜 풍경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었다.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사진이 다 예쁘게 나와서 신이 난 우리들은 여기서는 이 포즈로 저기서는 저 포즈로 앉았다 누웠다 하며 사진 찍기 바빴다. 높이 위치한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가리키는 저 먼 바다를 보며 우리도 함께 팔을 쭉 뻗어 보았다. 우리가 가리키는 곳엔 무엇이 있을까. 하얀 하늘, 파란 바다, 그리고 즐거운 여유로움, 이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내기엔 부족 하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손끝으로 꼭꼭 눌러 담았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통영에서 유명한 미륵산을 오를 수 있는 케이블카였다. 위태롭게 느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동안 무서워서 바깥 풍경 한번을 제대로 못 쳐다봤다. 그저 무사히 우리들이 두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부터는 나무계단을 오르는 일의 연속이었다. 매일 사무실 의자에만 앉아있어 오랜만에 계단을 오르는 등산을 하는 것이 숨도 차고 어지럽고 힘들었지만 중간 중간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통영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늘을 보며 오늘은 무슨 구름인지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어느새 미륵산 정상에 다다랐다.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꼭 사진을 찍고 내려간다는 미륵산이 새겨진 바위와 함께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하산을 했다.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숙소를 먼저 잡고 통영 중앙시장을 둘러보았다. 싱싱한 해산물들을 굉장히 싼 값에 팔고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두 손 가득 사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다. 손님들이 많아 북적이는 식당 안에 앉아 한 접시 가득 나온 회를 먹으며 계속 “진짜 맛있다!”를 외쳤다.



김지영
대전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부드럽게 입 안에서 녹는 생선살은 정말 일품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휴식과 더 힘찬 내일을 위해 숙소로 헤어졌다. 늦은 밤, 나는 숙소 창문 밖 반짝이는 야경을 내다보며 하루를 돌아보았다. 낮에 본 통영 바다에는 많은 어선들이 만선의 희망을 가득 안은 채 떠있고 바로 앞 중앙시장에는 싱싱한 생선들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들까지, 통영의 이국적인 모습 안에는 작은 어촌 마을 서민들의 생동감 있는 생활이 녹아있었다. 좋은 기회를 얻어 문화체험을 이곳, 통영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둘째 날,

우리 세 사람은 일찍 준비를 마치고 만나자마자 통영에 도착하면서부터 맛보고 싶었던 유자빵을 아침 주전부리로 먹었는데 새콤달콤하니 정말 맛있었다. 통영에서 유명하다는 꿀빵도 처음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달지 않고 식감이 쫄쫄했다. 유자빵과 꿀빵 시식을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들어간 김밥 집에는 메뉴가 충무김밥 딱 한가지였다. 접시 한가득 쌓아올린 충무김밥과 석박지, 오징어무침은 특별하진 않지만 서로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냈다.

통영의 마지막을 장식한 국제음악당은 생각보다 근사한 느낌의 건물과 빼어난 주변 경치를 자랑해 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과 2층 마당에서 우리는 마치 연예인이 되어 화보 촬영을 하듯 사진을 찍었는데 그만큼 풍경이 멋있어서 하루동일 여기에 있고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다. 탁 트인 시야가 내 속까지 뽕뽕주는 것 같아 시원했고 파도치는 바다와 따스한 햇살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졌다. 음악당 입구에는 음표모양의 커다란 조각상이 있었는데 어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홍빛 귀여운 음표 위에 앉아있으니 즐거운 음악에 취한 듯 마음이 춤을 추는 듯했다.

아쉽지만 통영과는 작별을 고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전주로 출발하였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전주 한옥마을은 멋들어진 기와집들이 골목골목 자리하고 있었다. 영화 곡성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도 찍고 한옥마을의 터줏대감인 듯한 은행나무와도 사진을 찍었다. 점심으로는 비빔밥과 떡갈비를 먹었는데 음식점 분위도 평화롭고 맛도 정갈하니 좋아서 기분도 좋았다.

한옥 마을에는 화려하고 예쁜 한복을 입은 젊은 관광객들이 참 많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돌아다녀보고 싶었다. 짧고 굵게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 본 우리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

1박 2일 동안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잠시 컴퓨터 앞을 떠나 자연을 눈에 담은 것만으로도 몸 안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제자리 돌아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될 것이고 가끔 지치고 힘들 때 통영과 전주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름다운 핑크빛 유혹 경상남도 합천군 황매산

봄꽃은 하루에 오십리 길을 복상하여 피기 시작한다.
봄의 전령인 동백꽃, 유채꽃, 매화꽃이 봄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한다. 여수 영취산에서 시작한 진달래꽃은 강화 고려산까지 꽃 천지를 이루면서 복상한 뒤 곧이어 철쭉이 산천을 붉게 물들인다. 철쭉은 진달래에 비해 붉기가 더해 화려함을 더욱 자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색으로 말해주는 꽃이기도 하다.

꽃이 아름다운 많은 산중에 황매산이 있다.

황매산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높이 1,108m의 소백산맥에 속하는 고봉이다. 주 봉우리는 크게 하봉, 중봉, 상봉으로 나뉜다. 삼라만상을 전시해 놓은 듯한 모산재(767m)의 바위산이 절경이며 그 밖에 북서쪽 능선을 타고 펼쳐지는 황매평전의 철쭉 군락과 무지개터, 황매산성의 순걸바위 등이 볼 만한 곳으로 꼽힌다. 황매산과 맞닿아 있는 모산재를 갔다 오면 금강산은 가보나 마나 할 정도의 비경을 자랑한다. “황매산은 수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온으로 황(黃)은 부(富)를 매(梅)는 귀(貴)를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풍요로움을 뜻하여 황매산에 들어오면 굶어죽지는 않는다”고 전해진다.

산 정상 7~8부까지 승용차로 올라갈 수 있는 황매산은 정상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보니 다리가 아파 등산이 어려운 분이나, 산을 죽어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산책하는 기분으로 쉽게 다녀 올 수 있다. 거기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맛있는 철쭉을 선사하니 일석이조의 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은행나무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눈앞에 드넓은 황매평전이 펼쳐진다. 황매평전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초원지대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 철쭉 밭이다. '세상에나.. 어쩔!' '와' 많은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로 탄성과 함께 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느라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꽃 속에서 들려온다. 사진 찍는 모습도 다양하여 꽃물결 속에서 자유형으로 가는 모습과 뛰는 순간을 담기위해 다 같이 손잡고 꽃덤불로 뛰어드는 모습이 봄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나 꽃잎을 입에 하나 물고, 머리에 꽃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다. 송이송이 꽃이 피듯이 마주치는 등산객 모두 봄꽃처럼 아름답다.



이인성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핑크빛 유혹

철쭉이 예쁘다느니, 멋지다느니 하는 수식어는 아무 필요가 없다.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핑크빛 장관 앞에서 파란하늘, 시원한 바람, 행복한 꽃내음, 뜨거운 가슴같이 핀 철쭉들... 무슨 말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꽃 속에서 웃으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산상화원의 핑크빛 유혹에 푹 빠져들면 된다. 뭉게구름 두둥실 떠가는 하늘바다에 붉은색 페인트를 산 전체에 부어 놓은 듯 오묘한 분홍의 철쭉은 감동적이며 환상 그 이상이다.

평전은 여러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태왕사신기', '태극기 휘날리며' 등 많은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황매산에는 영화주제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은 촬영을 위해 초가집으로 이루어진 마을과 전투장면 재현을 위한 산성이 있다.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새기고 간다. 우뚝 솟아 있는 황매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 계단을 오르면서 뒤돌아 본 황매평전의 시원스런 산상화원은 아름다운 이국땅에 와 있는 느낌이다. 정상에 올라서서 팔을 벌려 깊은 숨을 들이 마시면 황매산의 향기에 온몸이 날아갈 듯하다.

안전한 산행

따뜻해진 날씨에 등산객이 부쩍 늘었다. 봄철의 산은 지상보다 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나들이 복장으로는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가서 온도에 맞춰 껴입거나 하나씩 벗으면 된다. 정상에 올라 음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음주를 한 상태로 등산 또는 하산을 하는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정상을 다녀와도 산행이 조금 부족하다면 모산재 암릉을 추천한다.

전국 제일의 명당자리인 무지개터, 삼각 돛대 모양의 돛대바위 등이 볼만하다. 모산재를 향하여 이어지는 하산 길은 연녹색으로 피어나는 어린 나뭇잎과 붉은 빛 철쭉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숲길이다.

이 잔치에 어찌 그냥 돌아갈까! 능선에 누워 밤하늘의 별 따기 할까? 아니면 여기서 살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려온 하산길 끝자락에서 답답한 등산화를 벗고 개울에 발을 담군다. 시린 발이 나른함을 일깨울 때 돌아본 황매산 자락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울져갔다. 바다를 이룬 철쭉이 생각나 다시금 행복에 젖어본다.

천년고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노천 박물관 경주 남산

가장 높은 산, 바위가 멋있는 산, 멋들어진 성벽이 남아있는 산성, 꽃 · 갈대 · 단풍이 예쁜 산, 설경이 멋있는 산... 전국에 수많은 산들이 자기만의 자태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가봐야 할 산은 당연히 경주에 있는 남산이라 생각한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당당히 지켜온 남산

남산은 경주시 남쪽에 위치하고, 높이 494m의 고위봉과 468m의 금오봉 두 개의 봉우리가 아담하게 솟아 있는데, 이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개의 계곡을 합하여 “경주 남산”이라 부른다. 남산은 80여 구의 석불과 60여 기의 석탑, 100여개 소의 절터가 남아 있어 “노천 박물관”이라고도 한다. 남산은 수많은 전설을 품고 역사의 혼이 서려 있는 산으로 등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순례하며 역사의 생생한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지친 일상에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적극 추천하고 싶은 산이다.

유적지를 둘러보며 산행 할 수 있는 남산

남산의 산행코스는 경사가 완만하여 초보자들도 오르기에 무리가 없고 중간 중간 유적지를 보며 오르는 재미 또한 있는 곳이다. 초입에서는 삼불상의 크기에서 중압감을 느끼고 차아롭게 웃음 짓는 얼굴에서 인간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다. 푸른 잔디의 삼릉은 제주 오름 같은 크기이며, 이른 아침에 안개 속에서 한줄기 빛을 보는 소나무 숲은 으스스한 신비감마저 든다.

삼릉계곡 “선각육전불”은 선각으로 여섯 분의 부처님 상이 두개의 바위 면에 새겨져 있으며, 어느 정도 오르다보면 상선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왔으면 산행의 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금오산 정상에는 정상석이 있으며 특이하게도 카메라를 놓고 찍을 수 있는 삼각대가 있어 산 정상의 경치를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다.

남산의 바위에 올라 넓은 경주를 바라보면 마치 신라의 화랑이 된 기분이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느 작전으로 적을 섬멸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전망대가 많기 때문이다. 곳곳에는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있어 전쟁과 평화 그 어느 때라도 국민안을 빌 수 있었을 것 같다.



이인성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이후로 내리막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용장사곡삼층석탑이 있다.

석탑의 하층기단을 생략하고 각부의 조화와 아름답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산하를 보면 참으로 감탄스럽다. 높은 산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무겁고 투박한 돌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탑이 천년의 태풍을 견디며 서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보기 위해서는 수직암벽의 좁은 모퉁이를 돌아가야 한다.

선조들은 왜 이런 절벽위에서 보살상을 새기는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했을까? 높은 절벽 위에서 우리들을 내려다보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주길 바랐던 것일까.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동해 일출을 본다면 모든 산하가 평화로울 것만 같다. 힘들고 지친 다리도 한숨 돌릴 겸 한참동안 앉아서 부처님의 고운 미소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미학은 몰라도 그저 잔잔하고 은은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좋을 따름이다.

남산에 있는 부처는 “바위에 부처를 새기는 것이 아닌 바위속의 부처님을 고집어내어 바위에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이 이 표현에 제일 알맞다. 네모진 기둥 모양의 돌의 네 면 각각에 불상이 조각되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의 불상은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할 따름이었다. 360도 돌면서 감상할 수 있으며 보는 각도마다 배경과 부처의 조각이 다르게 보여 ‘어떻게 이러한 구상을 했을까’하는 감동의 물결이 가슴속으로 밀려들어온다. 고위산을 거쳐 용장계곡에 도착하여 시원한 계곡 물에서 여름산행의 땀을 식히면 이곳이 바로 극락이고 무릉도원이 된다.

남산만의 5가지 특색

첫 번째는 산행 후 조상의 얼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머리가 더 무겁다는 것, 두 번째는 산길을 벗어난 걱정을 덜어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구석에서 턱하니 나타난 꾸밈없는 부처의 모습, 세 번째는 짧은 산행거리에 비하여 가장 긴 산행시간을 기록한 것이다. 네 번째는 지도 한 장으로 그 많은 보물을 찾아가는 색다른 재미,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유적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찍기 위한 여유분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산은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비탈과 험하고 변화무쌍한 기암괴석 속에 노송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산 전체가 수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임을 증명한 최고의 산이라 가히 칭할 만하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천년고도의 숨결을 느끼면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산행을 한다면, 만족감과 마음 속 따스함은 천년을 갈 것이고 만면에 스민 맑은 미소 또한 천년을 갈 것 같다.



2016년도 기후변화 그림엽서 공모전 딩동~ 100년 후 지구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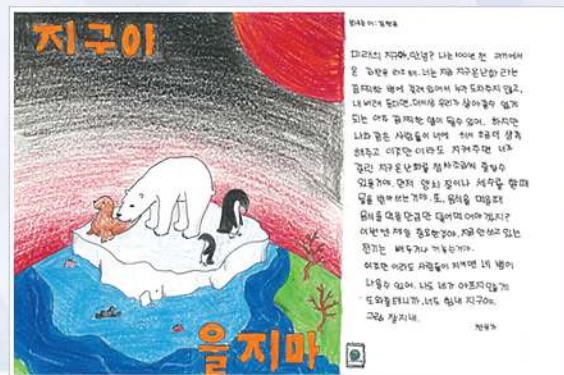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014년부터 지난 3년간「기후변화 그림엽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100년 후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들의 작품 611점이 응모 되었는데,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19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어린이들이 한번 더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그림과 글 속에 담아 표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1
2
3

- 1 <대상> 청주 봉정초(5) 홍성아
- 2 <최우수상> 안양 박달초(6) 박소윤
- 3 <최우수상> 광주 운천초(6) 김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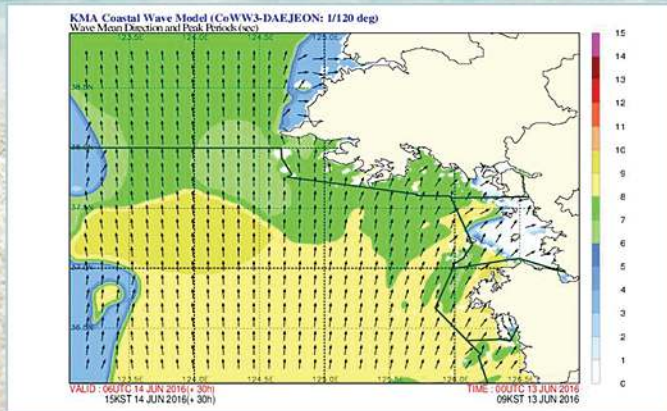


1
2
3
4
5
6

- 1 <우수상> 대전 흥룡초(2) 정예나
- 2 <우수상> 인천 부곡초(6) 박영신
- 3 <우수상> 안양 박달초(5) 김유진
- 4 <우수상> 대구 와룡초(1) 오채원
- 5 <우수상> 구미 양포초(1) 홍하음
- 6 <우수상> 구미 옥계초(4) 박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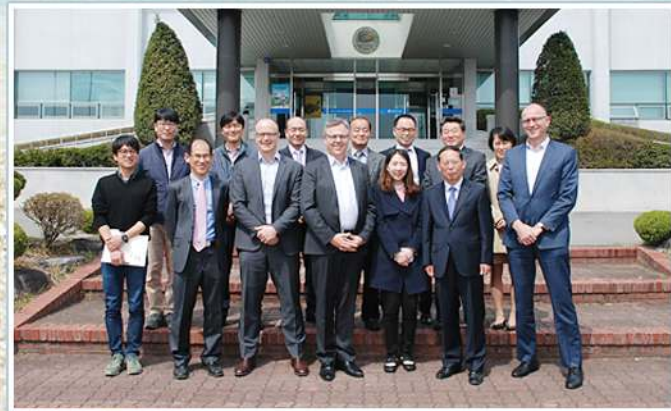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해양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 제공 (2016.4.~)

해상 예보체계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기상 전문상담관'이 신설되면서, 해양 위험기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기상 상세분석 자료인 '해양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를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풍랑, 폭풍해일 등 해양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해양업무 관련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전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유관기관 해양업무 담당자의 해양 위험 기상에 대한 이해도 증대와 해양위험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주기상청 내방 (4.6.)

제8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를 위해 내한한 호주기상청 대표단(청장 Rob Vertessy)이 4월 6일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하였다. 이날 호주 기상청장을 비롯한 3명의 호주기상청 대표단에게 대전청의 예보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 기상기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였고 예보센터, 홍보관 등 주요 시설견학을 하며 지방 기상청의 업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세계 기상의 날 기념 유관기관장 초청 (4.7.)

세계 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유관 기관장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대전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보관련 서비스(확률 일기예보, 오피니언 리더 대상 문자서비스 활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많은 기관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예보센터를 견학하여 예보를 생산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기상청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세종·충남지방 방재기상업무 소통 워크숍 개최 (4.7.~4.8.)

대전지방기상청은 방재유관기관과 영향예보 추진사항 공유와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기상청 방재기상서비스와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 공유를 통한 지역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4월 7일, 8일 대전·세종충남지방방재기상업무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영향예보추진현황을 안내하고, 기상재해자료 DB 구축, 방재기상동아리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부군 안전총괄과에서 충남 재난대응업무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기상청 영향예보 시험사업과 방재기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방재기상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방재 담당자간 소통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연재해 대응역량향상을 기대한다.



2016년 기후변화 홍보강사단 위촉식 개최 (4.14.)

2016년에도 기후변화를 알리기 위해 홍보단은 계속해서 달려간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강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기후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야기 해주실 분들을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방법 및 교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제17차 기상협력회의를 위한 대표단 방중 (4.18.~4.22.)

대전지방기상청 대표단(청장 등 직원 5명)은 중국 천진시 기상국 간 제17차 기상협력 회의를 위해 4월 18일~22일 5일간 방중했다. 기상협력회의에서 대전청은 충청지역 기후서비스사업과 기상청 올해 정책목표인 영향예보에 대해 소개하였고 중국 측은 단기예보업무 기후변화 및 기후서비스 업무에 대해 설명 하며 서로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기상기술을 교류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청 연구개발과제 연구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4.20.)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4월 20일, 최적의 연구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개발과제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충남 연구원의 이상진 센터장은 철저한 자료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전·세종·충남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 한마당' 개최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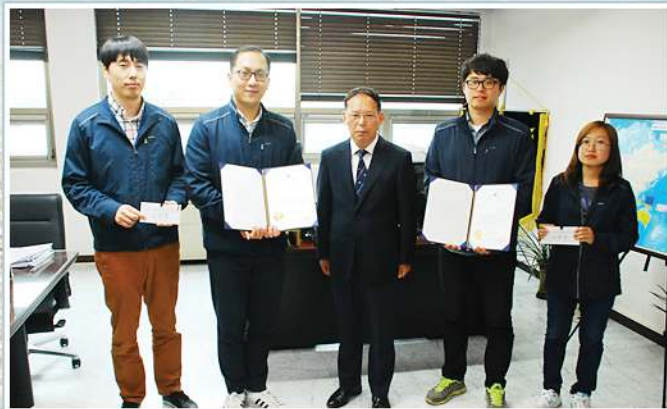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4월 27일,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후변화 유관기관 간 업무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기상·기후 교육과 홍보 업무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 등 관할지역 내 기후변화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업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해양맞춤형소통간담회 (5.4.)

5월 4일 홍성기상대는 해양맞춤형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해양업무 관련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에게 해양 맞춤형 정보 서비스와 지역기상담당관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충남서해안 지역의 기상재해 예방과 해양기상 관련 정책들을 공유하며, 충남서해안 지역의 해양기상서비스 증진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청 자체 제안 경진대회 개최 (5.9.)

기상행정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5월 9일 '2016년도 대전청 자체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앞선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4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한 결과 '일거양득 IT 기술 실시방안'의 배철호 주무관과 '날씨정보를 활용한 악취지수 개발'의 박창용 주무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름철 '찾아가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운영 (5.9.~5.10.)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을 대비하여 5월 9일~10일 이틀간 관할지역의 방재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2016년 여름철 '찾아가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2016년 여름철 기상전망을 공유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및 재해대응과 원활한 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6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연구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5.10.)

기후변화 및 FTA 확대 등으로 농업의 취약성이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천안 팔 재배를 위한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천안 팔으로 충남 천안시에서는 전국 브랜드 가치 1위인 천안 호두과자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천안지역 팔 재배면적 확대와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천안지역 기상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가 필요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기후서비스과는 연구의 첫 삽을 뜨는 착수보고회를 5월 10일 개최하였다.



2016년도 상반기 소통워크숍 개최 (5.13.~5.14.)

5월 12일~13일 직원,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대전청 상반기 소통 워크숍'이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공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이뤄진 이번 워크숍은 공무원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상업무 공유 그리고 성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태화산 트래킹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웃기관유성구청 '유성온천문화축제, 라디오인터뷰 참여' (5.14.)

대전지방기상청이 속해있는 유성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유성온천 문화축제'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였다. 과학마을 유성나들이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초등학생에게 기상청을 소개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라디오인터뷰 라디오 생방송에 패널로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대덕특구 기관들 중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역 기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장답사 실시 (5.16.~17.)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예보현업 4개팀(홍성기상대 포함)이 4차에 걸쳐(3.28.(월)~29.(화), 4.11.(월)~12.(화), 4.25.(월)~26.(화), 5.16.(월)~17.(화)) 지형 답사를 실시하였다. 충남서해안 지형과 답사일의 해륙풍 특성을 조사하고, 남해안과 서해안의 지형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해륙풍 영향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제2회 릴레이 명사특강 운영 (5.19.)

대전지방기상청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5월 19일 제2회 릴레이 명사특강을 운영하였다. 이번 명사특강은 한남대 한국어학당 이기종교수가 '공문서바로쓰기'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그동안 헛갈리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맞춤법과 공문서 표현에 대해 알게 됐고 올바른 공문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문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5.20.)

대전지방기상청은 연구개발과제 수행력 향상을 위해 해륙풍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고층관측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서대학교 김영철교수가 해륙풍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김승욱 예보자문관이 '지면온도와 수온의 연변화와 지면 효과'를 강의하였고, 한스텍(모델사 에이전시) 관계자가 '라디오존데 운용 절차'를 교육 하고 비양 실습을 실시하였다.



대전환경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 (5.20.)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20일 충청권 환경 유관기관장을 초청하여 '환경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국립 생태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다양한 환경관련 10개 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토의하며 서로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충남서해안 해륙풍 1차 집중관측 실시 (5.22.)

대전지방기상청은 2016년도 연구개발과제로 '3차원 집중관측을 통한 충남서해안 국지해륙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서해안에서 발생하는 국지해륙풍 순환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5월 22일~26일 부여자동차관측소와 천안지역서비스센터에서 모바일관측차량을 활용하여 총 24회 라디오존데 관측을 실시 하였다. 군산 윈드프로파일러, 모바일관측차량 라디오존데, 산림청 산악기상 관측장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선상에서의해륙풍 연직순환 구조를 분석 할 수 있었다.



여름철기상전망언론브리핑 및 기자간담회개최 (5.23.)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5월 23일, 장기예보 및 기상청 업무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6년 여름철 기상전망 언론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여름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8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여름철 태풍은 평년보다 적은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2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운영 (5.25.)

대전지방기상청은 업무 능률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 25일 제2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를 운영하였다. 대전 체력 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체력측정 프로그램으로 신체, 체력검사뿐만 아니라 체력검사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이 제공되었다. 검사결과가 우수한 직원에는 1~3등급의 체력인증서가 주어졌다.



충남대 생활과학교실 협업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운영 (4.28./5.23./5.26. 총3회)

충남대 생활과학교실과의 협업을 통해 기상업무를 소개하고 기상과학 지식보급 및 기후변화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반기 총 3회(구죽도서관, 유성구 장애인 복지관, 송촌도서관) 63명의 학생들과 함께하였다. 기존의 찾아오는 소극적인 교육에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교육 소외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무슨일을 하나요? (기상청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기상청은 일기예보를 생산하는 업무만 하는 곳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변화시키고,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진로교육법에서의 국가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과학고 학생들과 함께했던 대국민 기상교육, 공주여중과 멀리서 와준 당진 원당중학교 학생들이 빛내준 대전지방기상청의 인기만점인 '커리어멘토'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래의 기상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질바란다.



상반기 유관기관 현장 맞춤형 방재기상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자체와 유관기관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상에 대한 이해와 정보 활용법을 교육하여 기상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한 '2016년 상반기 유관기관 현장 맞춤형 방재기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맞춤형 교육을 사전 신청한 대전시 재난관리과, 보령시 안전재난과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강사가 방문하여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유관기관방재담당자의 기상에 대한 이해와 정보 활용능력 향상으로 위험기상 선제적 대응과 기상재해 최소화를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특별한 모임 '브런치기후카페 2기' 출범 (5.30.)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후변화 이해확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브런치 기후 카페 2기가 출범하였다. 2015년 1기가 인기 만점의 프로그램이 되면서 2기는 더욱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하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함께하는 브런치 기후 카페.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개최 (5.31.)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31일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충남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5개 기관 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2016년 여름철 방재기상 업무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여름철 위험기상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의 최소화를 위해 방재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재해대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과 효과적인 재해공동 대응으로 기상재해 예방을 기대한다.

대천 해수욕장

출처: 기상청(기온, 습도, 풍속, 기압)
출처: 기상청(기온, 습도, 풍속, 기압)

초단기 예보

2016년 06월 21일 08:00 발표

구분	08시 현재 날씨	09시 예보	10시 예보	11시 예보	12시 예보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 5동	기온 22℃ 습도 88% 풍속 1m/s 기압 1013.0hPa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출처: 기상청(기온, 습도, 풍속, 기압), 기상청(기온, 습도, 풍속, 기압)]

동네예보(3시간)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 5동

2016년 06월 21일 08:00 발표

날씨	오늘(21일)	내일(22일)	모레(23일)																
시간	12	15	18	21	24	08	09	12	15	18	21	24	08	09	12	15	18	21	24
날씨	☀	☀	☀	☀	☀	☀	☀	☀	☀	☀	☀	☀	☀	☀	☀	☀	☀	☀	☀
강수량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수확률	-	-	-	-	-	1~4mm	10~19mm	10~19mm	10~19mm	-	-	-	-	-	-	-	-	-	-
최저기온	-	-	-	-	-	21	-	-	-	-	-	-	-	-	-	-	-	-	-
최고기온	28	28	28	28	28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기온	28	27	26	25	22	21	21	24	25	26	25	24	20	21	22	25	27	27	24

해수욕장 날씨서비스 시행 (6.1.~8.31.)

대전지방기상청은 충청남도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6월 1일~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날씨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단기예보, 동네예보, 중기예보, 생활기상지수(불쾌지수,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수온·파고 실태, 일출·일몰시간, 밀물·썰물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 여름철 여가생활 맞춤형 기상정보를 서비스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안전 도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2016년 지역축제 기상기후체험 홍보부스 운영 (5.14./6.2.)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과학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여러 지역축제에 기상기후체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서산 류방택별축제', 6월 2일에는 '대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시물 관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 키트만들기,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한 음식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방법을 알리고 기상청의 역할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6년도 여름철 기상관측기술 세미나 개최 (6. 8.)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6월 8일 '여름철 기상관측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철 위험 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낙뢰관측에 대한 관측기술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험기상 감시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예보 협업체계 구축과 예보체계 개편 관련 소통을 위한 충남도청 방문 (6.14.)

박철홍 예보과장은 영향예보 이해 확산과 상호 협력 강화, 예보체계 개편에 대한 소통을 위해 6월 14일 충남도청을 방문하였다. 자연재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향예보 정의,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해 경감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올해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 중인, 2016년도 기상예보체계 개편 및 단계별 시행계획(23시 단기예보 통보문 중단, 단기예보 통보문 개항 및 특보양식 개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였다.



영향예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여군청 방문 (6.17.)

대전지방기상청은 영향예보 시범사업인 '충청남도 부여군의 호우 영향예보 기반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6월 17일 부여군을 방문하였다. 안전총괄과장, 재난방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향예보와 대전지방기상청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 호우 영향예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업하기로 약속하였다. 호우로 인한 부여군 재해 현황과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왕포천과 금강 합류지점인 중정리를 답사하였다. 또한 부여군 방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여름철 위험기상 공동대응을 준비하였다.



2016년 기후변화대응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강의 (6.27.)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광역시에서 후원하고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에 전문강사로 초청받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적응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받은 50여명의 수강생들은 수료 후 기후변화 대응 시민 전문가 및 비 산업 부문 온실가스 컨설턴트로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 설명회 개최 (6.28.)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6월 28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후자료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와 활용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자체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학·군 기상기술교류 합동세미나 개최 (6.28.)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 28일 호텔 선샤인에서 '2016년도 관·학·군 기상기술 교류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공군기상단(중앙기상부, 해미공군 20전투비행단) 내·외부 인사 30여 명이 참여하여 충남서해안 해륙풍 기초연구와 해륙풍 영향을 받는 기상 요소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지속적으로 지역 기상인과 기상기술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기상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16년 기상사진전 개최 (4월, 5월, 6월)

대전지방기상청은 매년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관할지역 내 의미있는 곳에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충남대와 대전시청 및 대덕구청, 충남도청, 5월에는 정부대전청사와 대전 지하철 1호선 지족역 대합실 그리고 6월에는 세종도서관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아름답고 멋진 기상 사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계된 기상재해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지역민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임용한 대전지방기상청장 취임식 (6.30.)

지난 6월 30일 대전청 3층 강당에서 대전지방기상청장 취임식이 있었다. 임용한 대전지방기상청장은 1976년 기상청에 입사한 뒤 대전지방기상청장을 끝으로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기상청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날 임용한 대전지방기상청장의 대전청 부임 후 현재까지 활동한 사진들을 모은 앨범과 꽃다발 증정식을 가졌고 대전청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6월 대전·세종·충남 관측기록

4 April

- 4. 1. 벚꽃 군락단지(신탄진KT&G 공장 내) 개화
- 4. 2. 복숭아 개화
- 4. 9. 배나무 개화

5 May

- 5. 2. 아까시 나무 개화
- 5.19. 5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대전, 천안, 부여, 서산)
 - 대전 : 1위 31.3℃ (기존 : 31.0℃ / 1978.5.16)
 - 천안 : 1위 30.4℃ (기존 : 30.4℃ / 1991.5.20)
 - 부여 : 1위 31.6℃ (기존 : 31.6℃ / 1978.5.16)
 - 서산 : 1위 30.9℃ (기존 : 30.8℃ / 1991.5.20)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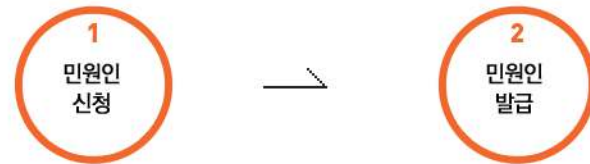
민원신청방법

1. 일반민원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방문·우편·전화·FAX·E-mail의 방법으로 접수·처리하는 민원



tip 민원인은 각 서식의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 → 담당자가 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인은 민원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 → 민원 발급 및 수령

2. 전자민원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ma.go.kr>)를 통하여 접수·처리하는 민원



tip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m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2015년 8월 7일부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소개

- 대전지방기상청은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잡고 있어 청사 주변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관람시설이 있음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학생 수준의 체험학습 가능
- 기상홍보관은 본관 3층에 위치



기상업무전시실
일기예보의 생산과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안내



기상역사전시실
기상관측 역사 및 대전지방기상청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날씨방송체험실
기상캐스터 체험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기상장비전시실
현재날씨를 관측하는 관측 장비를 실물로 비치

체험학습 신청방법

-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 주무관 또는 기상해설사에게 전화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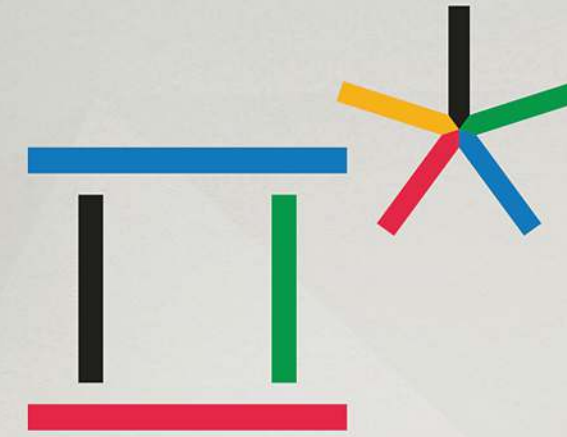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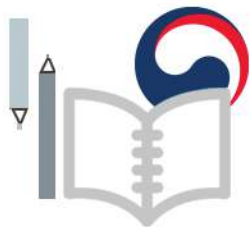
- 기후서비스과 교육·홍보 담당 주무관 : 070-7850-4164
- 기상 해설사 : 070-7850-4150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제목	대상
1월 6/13/20/27일	2015~16년도 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교 고학년
3월 26일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
4월 9/10일	대국민 기상교육(지역축전)	초등학생 이상
	대국민 기상교육(기상청 직업체험)	중·고등학생
5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기상정보활용과정	일반인 및 단체
6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7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주니어닥터 연계)	초등학생
8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9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학교와 나누는 기상기후정보교실	대전 외곽지역의 초등학생
10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11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 문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070-7850-4164)
*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PyeongChang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모집

2016.07.01~2016.09.30

지구촌 축제의 주인공이 되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년 2월 9일 ~ 2월 25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년 3월 9일 ~ 3월 18일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 홈페이지
vol.PyeongChang2018.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